남가주 신년 하례식

2022 년 3 월 20 일(일) 오후 6 시 남가주 서울 의대는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

120 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신년 하례식을 가졌다.

이날 차민영 회장은, 전 회장인 안우성 과 총무 및 재무였던 김영애 그리고 20 여년 동안 사진 촬영으로 수고한 나두섭 동문에게 감사패를 수여 했다. 현재 남가주 서울 의대 임원은 차민영 회장, 김자성 총무 , 안상훈 재무가 수고하고 있다.